

“원재료 가격 급등”... 봄 성수기에도 세탁소 ‘울상’

중등발 솔벤트 130% 인상...비닐 등 포장재도 올라 고물가 속 고객 발길도 줄어...업계 “지원책 등 시급”

#1 광주 광산구에서 30여년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김씨는 최근 드라이클링 비용의 가격을 2000원 올렸다. 드라이클링 원재료인 솔벤트 용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용을 올리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원재료 값도 나오지 않는다. ‘가격을 올렸냐’는 손님들의 물음에 그저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말겨왔지만 올하는 양복이나 고급 코트를 빼곤 손세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자주 이용하던 세탁소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통 코트 한 3~4벌만 맡기면 4~5만원했던 가격이 지금은 10여만원 가까이 나오며 부담을 느끼는 고객도 늘었다. 김씨는 “드라이클링 원료의 가격이 올라 비용도 올랐다는 안내를 받기 했지만 2배가량 오르면 감당할 수 없을 거 같다”고 토로했다.

#2 광주 남구에서 사는 30대 최씨는 해마다 이맘때마다 겨울옷을 모아 세탁을

중등사태 장기화 여파가 광주·전남지역 동네 세탁소까지 미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드라이클링 용제 등 원재료 가격이 중등사태 영향으로 급등한 가운데 세탁 물량이 몰리는 성수기인 봄철 용제 값이 치솟아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2월 업계에 따르면 중등사태 전 18kg 기준 3만6000원대였던 드라이클링 원재료인 솔벤트 용제 가격은 최근 10만원선에서 거래되며 불과 2달여 만에 130% 가량 인상됐다.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세탁 서비스요금은 각각 8200원, 1만16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광주 7500원·전남 9722원 대비 각 9.3%, 4.6%

오른 수치다. 이 같은 이유로 평소 세탁소를 찾던 이들의 발길마저 끊기며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패딩이나 코트, 니트류 등 겨울 외투 세탁 물량이 몰리는 성수기인 봄철, 세탁소는 드라이클링 수요가 대부분인 만큼 드라이클링 원재료 가격 상승은 곧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상당수 세탁소가 요금을 올리거나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중등발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만으로 나프타로 만드는 포장 비닐값까지 6만원 수준에서 10만원 이상 오르면서 세탁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탁업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기

서 그치지 않는다. 중등사태로 인해 원재료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등의 지원에서 세탁업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요소에서 유통되는 휘발유 등은 가격 통제를 받지만 솔벤트 등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있어사다. 세탁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원재료값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세탁물을 받아놓고 원료 비용 부담 때문에 쌓아두는 세탁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을 정도 어려움이 크다”며 “한시적인 지원책이라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윤창=클립아트코리아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거제 문어빵’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21일까지 거제도 지세포의 명물인 ‘거제문어빵’ 팝업행사를 진행한다. 거제문어빵은 국내산 쌀로 반죽하고 수제 치즈와 문어가 재료로 들어가 같은 바삭하고 속은 쫄쫄한 점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오리지널 문어빵을 비롯해 콘치즈 문어빵, 피자 문어빵 등 다양한 풍미의 문어빵을 만나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방문상담 서비스 ‘본격화’

은행 방문 어려운 자영업자 원스톱 상담 진행

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방문상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절세·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 제도로,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방지 기능 등을 갖춘 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꼽힌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이

길거나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기관 방문 자체가 쉽지 않아 대면 상담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방문상담 서비스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상담부터 제도 안내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 체계’다. 서비스 신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한 뒤 신청자 정보와 희망 방문 일시 등을 입력하면 된다. 앞서 지난 3~4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953명이 방문상담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20명이 실제 노란우산에 가입해 약 34%의 가입 전환율을 기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소상공인들도 노란우산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메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GICON, 서울서 ‘메이드 인 광주’ 상영회 개최

서울영화센터서 광주 영화 제작 지원작 37편 선배

광주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열린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광주영화 상영회 ‘메이드 인 광주’를 서울영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GICON의 ‘광주영화제작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작품들을 서울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광주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간 영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와 GICON,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체결한 ‘지역 영화문화 진흥 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 영화와 수도권 관객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영작은 장편 10편, 단편 27편 등 총 37편으로, 광주 지역의 독창적인 시각과 탄탄한 서사가 돋보이는 독립영화들로 구성됐다. 월요일을 제외한 7일간 진행되는 최다 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GICON은 이번 상영회를 통해 광주 지역 영화인들에게는 작품 홍보와 배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지역 영화의 신선한 매력

력을 선사할 계획이다. 서울 영화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서울영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영회를 통해 광주 영화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서울-광주 간 영화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광주에서 피어난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서울이라는 큰 무대에서 공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주 영화가 전국, 나아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제작부터 상영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광주경찰청 | 진리남도경찰청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정보원 | 안전보건공단 | GTC |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